

디지털 돌봄 시대의 부모 역할 재구성: 미국 · 핀란드 · 중국 비교사례를 중심으로

김병선* · 전은옥**

본 연구는 디지털 기술이 일상화된 환경에서 부모 역할이 어떻게 재구성되고 있으며, 이러한 재구성이 부모-자녀 관계와 어떠한 관련성을 갖는지를 탐색하기 위해 미국, 핀란드, 중국을 대상으로 비교사례연구를 실시하였다. 연구 자료는 각 국가의 학술논문, 정부·정책 문서, 연구보고서 및 관련 기관 자료로 구성하였으며, 문헌분석을 통해 수집 및 분석하였다. 분석 틀은 디지털 환경 특성, 부모 역할 변화, 부모교육 및 돌봄 지원체계, 부모-자녀 관계 변화의 네 범주로 구성하였으며, 사례 내 분석과 사례 간 비교분석을 병행하였다. 연구 결과, 첫째, 디지털 기술의 확산은 부모 역할을 약화시키기보다 자녀의 학습과 디지털 경험을 지원하는 교육적 동반자로 재구성하는 양상을 보였다. 둘째, 국가별 디지털 돌봄 양상은 문화적 가치관과 교육철학, 부모교육 정책에 따라 차이가 나타났다. 셋째, 분석대상 자료에서 나타난 상대적 특징을 토대로 미국은 참여형, 핀란드는 협력형, 중국은 관리형의 분석적 유형으로 도출되었다. 넷째, 이러한 국가별 유형은 사회문화적 맥락에 기반한 분석적 유형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디지털 돌봄이 기술 자체에 의해 일률적으로 결정되기보다 사회문화적·제도적 맥락 속에서 구성됨을 시사한다. 또한 본 연구는 디지털 돌봄의 관점에서 부모 역할의 재구성을 이해할 수 있는 분석 틀을 제시하고, 부모의 디지털 리터러시 및 부모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주제어 : 디지털 돌봄, 부모-자녀 관계, 부모 역할, 부모교육, 비교사례연구

논문 투고일 : 2026. 07. 30.

최종심사일 : 2026. 09. 17.

게재확정일 : 2026. 09. 22.

* 가톨릭관동대학교, VERUM교양대학 조교수

**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대안연구소 선임연구원

Corresponding author : Jun, Eunock, Noworry, Hangang-daero, Yongsan-gu, Seoul, Korea. E-Mail: juneunock@naver.com

I. 서론

21세기 디지털 기술의 급속한 발전은 교육과 돌봄의 방식뿐 아니라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도 새로운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인공지능, 온라인 플랫폼, 모바일 기기가 일상생활과 교육에 활용되면서 부모는 자녀에게 직접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는 유일한 교육적 주체라기보다 디지털 기술과 플랫폼을 활용하여 자녀의 학습과 성장을 지원하는 새로운 역할을 요구받고 있다. 특히 생성형 인공지능을 비롯한 AI 기반 학습도구와 온라인 학습 플랫폼의 확산은 정보 탐색과 문제해결 방식을 변화시키고 있으며, 가정 내 학습지원과 부모-자녀 상호작용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김미나·김성백, 2026).

이러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부모의 관심과 의사소통, 직접적인 상호작용은 자녀의 발달과 건강한 디지털 기술 활용에 여전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권혜림·이완정, 2022; 홍찬영·한성희, 2024). 특히 디지털 기술이 자녀의 학습과 생활에 깊이 관여하면서 부모에게는 단순한 기기 사용의 감독이나 통제를 넘어 자녀의 디지털 경험을 이해하고, 정보를 함께 판단하며, 학습과 성장을 지원하는 역할이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디지털 환경에서 나타나는 변화는 부모 역할의 축소라기보다 기존의 돌봄과 교육 역할이 새로운 방식으로 재구성되는 과정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러나 기존의 디지털 돌봄 연구는 주로 노인 돌봄, 장애인 복지, 스마트 헬스케어 및 지역사회 통합돌봄 등 복지서비스 영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강동훈, 2025; 김남숙, 2025; 양승완 외, 2021; 이은영, 2025). 이에 비해 영유아 및 아동의 디지털 환경에서 부모 역할과 부모-자녀 관계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탐색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또한 디지털 기술이 부모의 교육 및 돌봄 역할에 미치는 영향은 각 국가의 교육제도, 가족정책, 복지체계 및 문화적 가치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문무경 외, 2011; 장혜진·송신영, 2014), 이를 국가 간 비교의 관점에서 분석한 연구는 제한적이다.

따라서 디지털 돌봄 시대의 부모 역할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특정 국가의 사례에 한정하기보다 서로 다른 사회·문화적 맥락을 가진 국가들을 비교할 필요가 있다. 비교사례연구는 서로 다른 제도적·문화적 환경에서 디지털 기술과 부모 역할의 관계가 어떠한 방식으로 나타나는지를 분석하고, 그 공통점과 차이를 통해 부모 역할 재구성의 의미를 탐색하는 데 유용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미국, 핀란드, 중국을 비교사례로 선정하였다. 미국은 부모참

여와 학교-가정 간 협력을 강조해 왔으며, 핀란드는 교육복지와 평등, 학생의 자율성과 주체성을 중시하는 교육체계를 발전시켜 왔다. 중국은 전통적인 가족의 교육적 역할과 함께 국가 주도의 돌봄·교육정책이 강화되어 왔다. 이처럼 서로 다른 교육적·사회문화적 맥락을 가진 세 국가를 비교함으로써 디지털 기술이 부모의 돌봄과 교육 역할에 어떻게 결합되며, 그 과정에서 부모 역할과 부모-자녀 관계가 어떻게 재구성되는지를 탐색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특정 국가의 제도적 우수성을 평가하거나 정책을 단순히 모방하는 데 있지 않다. 서로 다른 사회·문화적 환경에서 디지털 기술이 부모의 돌봄과 교육 역할에 어떻게 결합되며, 부모 역할과 부모-자녀 관계가 어떠한 방식으로 재구성되는지를 비교·분석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통해 디지털 돌봄 환경에서 부모 역할의 재구성을 사회문화적 맥락에서 이해하고, 한국의 부모교육과 디지털 돌봄 지원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디지털 돌봄 환경에서 부모 역할은 어떠한 방식으로 재구성되고 있는가?

연구문제 2. 미국·핀란드·중국의 부모 역할 재구성은 어떠한 공통점과 차이점을 보이는가?

연구문제 3. 미국·핀란드·중국의 비교사례에서 나타난 부모 역할의 재구성은 부모-자녀 관계 및 한국의 부모교육에 어떠한 시사점을 제공하는가?

II. 이론적 배경

1. 디지털 돌봄의 개념과 특성

디지털 기술의 발전은 돌봄의 방식과 주체를 변화시키고 있다. 디지털 돌봄(digital care)은 단순히 돌봄 과정에서 디지털 기기를 사용하는 수준을 넘어 온라인 플랫폼과 디지털 콘텐츠 및 기술 기반 서비스가 돌봄 과정에 참여하는 새로운 돌봄 환경을 의미한다(박광옥 외, 2022). 이러한 환경에서는 부모와 학교뿐 아니라 다양한 디지털 기술과 서비스가 자녀의 학습과 돌봄을 지원하면서 돌봄의 주체와 관계가 확장된다. 따라서 디지털 돌봄은 기술의 도입 자체보다는 기술이 부모-자녀의 상호작용을 어떻게 매개하고 부모의 역할과 관계를 어떻게

변화시키는지의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디지털 돌봄은 디지털 양육(digital parenting), 부모의 디지털 중재(parental mediation), 부모참여(parent involvement)와 밀접하게 관련되지만 개념적 범위에는 차이가 있다. 디지털 양육은 자녀가 디지털 미디어 및 온라인 공간과 상호작용하는 과정에서 그 이점을 극대화하고 잠재적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부모의 양육 실천을 의미하며(Choy et al., 2024), 부모의 디지털 역량과 자녀의 디지털 이용에 대한 관리 및 지도 등을 포함한다. 부모의 디지털 중재는 자녀의 디지털 기술에 대한 접근과 이용을 조정하고 디지털 환경이 제공하는 기회와 잠재적 위험 사이에서 자녀의 디지털 경험을 지원하는 부모의 구체적인 실천에 초점을 둔다(Goodall et al., 2025). 부모참여는 자녀의 교육과 관련하여 부모가 가정과 학교에서 수행하는 다양한 참여행동을 포괄하며, 가정에서의 학습지원, 학교와의 의사소통 및 학교활동 참여 등을 포함한다(Bakker & Denessen, 2007).

이에 비해 본 연구에서 다루는 디지털 돌봄은 부모 개인의 디지털 양육이나 중재행동에 한정하지 않는다. 디지털 기술이 매개되는 환경에서 부모가 자녀의 학습과 생활 및 디지털 경험을 지원하고, 이러한 역할이 학교·공공기관·정책적 지원체제와 연계되는 과정까지 포괄하는 분석적 관점으로 사용한다. 따라서 본 연구의 디지털 돌봄은 앞선 개념들을 대체하는 개념이라기보다 부모의 양육과 중재, 교육적 참여 및 사회적 지원체제가 디지털 환경에서 부모-자녀 관계와 어떻게 결합되는지를 통합적으로 살펴보기 위한 분석적 관점이다.

2. 디지털 환경에서의 부모 역할과 부모-자녀 관계

부모는 전통적으로 자녀의 신체적·정서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돌봄 주체인 동시에 지식과 사회적 규범을 전달하는 교육적 역할을 수행해 왔다. 부모의 양육태도와 상호작용은 자녀의 사회·정서적 발달, 자아개념, 자기효능감 및 성취동기와 밀접하게 관련되며(현정환, 2007), 사회환경의 변화에 따라 부모가 수행하는 구체적인 역할과 부모-자녀의 상호작용 방식도 변화해 왔다.

디지털 환경에서도 부모-자녀 관계의 중요성은 지속된다. 부모의 직접적인 상호작용과 관심, 의사소통은 자녀의 발달뿐 아니라 건강한 디지털 기술 활용과 관련되며(권혜림·이완정, 2022; 홍찬영·한성희, 2024), 자녀의 디지털 경험에 부모가 어떠한 방식으로 참여하고 중재하는가는 새로운 부모 역할의 중요한 영역이 되고 있다. 특히 부모의 역할은 자녀의 디지털

기기 사용을 제한하거나 감독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자녀가 디지털 환경에서 얻는 정보와 경험을 이해하고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향으로 확장되고 있다.

생성형 AI와 디지털 플랫폼이 정보 탐색과 학습지원 기능의 일부를 담당하게 되면서 이러한 변화는 더욱 뚜렷해지고 있다. 부모는 지식과 정보를 직접 제공하는 역할뿐 아니라 자녀의 디지털 기술 활용을 안내하고, 정보를 함께 판단하며, 자녀의 학습과 디지털 경험에 대해 대화하는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디지털 기술의 확산은 부모의 역할을 일방적으로 축소하는 현상이라기보다 기존의 보호·교육·중재 역할이 디지털 환경에 대응하여 조정되고 확장되는 부모 역할의 재구성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역할 재구성은 부모 개인의 디지털 기술 활용능력만으로 설명하기 어렵다. 부모가 자녀의 디지털 경험에 어느 정도 참여하고 어떠한 방식으로 중재하는지는 부모-자녀 간의 신뢰와 의사소통, 자녀의 자율성, 학교와 가정의 관계, 부모에게 요구되는 교육적 책임 및 사회적 지원체계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디지털 환경에서 부모 역할의 변화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부모의 개별적인 양육행동과 함께 부모-자녀 관계와 이를 둘러싼 교육적·사회적 맥락을 통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3. 디지털 돌봄과 부모교육 및 사회문화적 맥락

디지털 환경에서 부모가 수행하는 역할은 부모 개인의 선택이나 디지털 역량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부모 역할을 둘러싼 사회문화적·제도적 환경과 관련된다. 부모가 자녀의 디지털 경험에 참여하고 이를 중재하는 방식은 사회가 부모에게 기대하는 교육적 책임, 학교와 가정의 관계, 교육 및 가족정책, 자녀의 자율성에 대한 가치 등과 결합되어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디지털 돌봄은 개인적 차원의 양육행동뿐 아니라 부모의 역할을 구성하는 사회적·제도적 조건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부모교육은 이러한 부모 역할의 변화를 지원하는 중요한 사회적 체계이다. 기존의 부모교육이 자녀의 발달에 대한 이해와 양육방법 및 부모-자녀 상호작용을 지원해 왔다면, 디지털 환경에서는 자녀의 디지털 경험을 이해하고 적절하게 중재할 수 있는 부모의 역량이 추가적으로 요구된다. 특히 디지털 환경에서 부모교육은 기기 사용시간이나 이용 제한과 같은 관리적 접근에만 머무르기보다 자녀와의 의사소통, 디지털 정보에 대한 판단, 책임 있는 디지털 활용 및 부모-자녀 간의 상호작용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확장될 필요가 있다.

또한 부모 역할과 부모교육의 구체적인 양상은 각 사회의 교육문화 및 제도적 맥락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미국의 경우 부모참여와 학교-가정-지역사회 간 협력이 강조되어 왔으며(Henderson & Mapp, 2002), 핀란드는 교육의 평등과 학습자의 자율성, 미디어 리터러시 및 시민성을 중시하는 교육적 전통을 가지고 있다(Salomaa & Palsa, 2019; Schleicher, 2019). 중국에서는 가족의 교육적 역할이 강조되어 온 가운데 「가정교육촉진법」 등을 통해 부모의 가정교육 책임과 자녀의 인터넷 이용에 대한 지도·관리 역할이 제도적으로 강조되고 있다(이수진, 2024). 이처럼 부모에게 기대되는 역할과 이를 지원하는 사회적 체계가 상이하기 때문에 동일한 디지털 기술이 활용되더라도 부모 역할과 부모-자녀 관계에 결합되는 방식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디지털 돌봄 환경에서 부모 역할의 재구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술 자체의 영향뿐 아니라 각 사회의 교육문화, 부모 역할에 대한 사회적 기대, 부모교육 정책 및 지원체계를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관점은 서로 다른 사회문화적·제도적 맥락을 가진 미국·핀란드·중국을 공통의 분석 틀에서 비교할 수 있는 이론적 근거를 제공한다. 본 연구는 이를 바탕으로 디지털 환경 특성, 부모 역할 변화, 부모교육 및 돌봄 지원체계, 부모-자녀 관계 변화라는 공통 범주를 통해 세 국가의 사례를 비교하고자 한다.

III. 연구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디지털 돌봄 시대 부모-자녀 관계의 변화 양상을 탐색하기 위하여 질적 연구 방법 중 비교사례연구를 적용하였다. 비교사례연구는 유사한 현상을 나타내는 둘 이상의 사례를 선정하여 사례 간 공통점과 차이점을 비교·분석하고 현상을 설명하는 요인과 맥락적 특성을 파악하는 연구방법이다. 비교사례연구를 통해 각 사례의 특성과 차이를 분석하고, 사례 간 차이를 설명하는 이론적 함의를 도출할 수 있다(이상민·박민정, 2024; Yin, 2014).

디지털 돌봄은 기술 활용의 문제만이 아닌 부모 역할, 부모교육, 교육정책, 문화적 가치관

이 구성하는 복합적인 현상이다. 따라서 서로 다른 사회·문화적 맥락에서 디지털 돌봄과 부모-자녀 관계가 어떻게 구성되고 변화하는지를 비교하는 접근이 연구의 목적에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본 연구는 사례 선정과 분석 기준 설정을 고려하여 미국, 핀란드, 중국을 사례 국가로 선정하고, 각 국가의 디지털 환경 특성, 부모 역할 변화, 부모교육 및 돌봄 지원체계, 부모-자녀 관계 변화 양상을 중심으로 비교·분석하였다.

2. 사례 국가 선정

본 연구는 디지털 기술의 발전 수준 자체를 국가 선정의 기준으로 삼기보다, 디지털 환경에서 부모의 교육·돌봄 역할을 구성하는 제도적·사회문화적 맥락이 상이한 국가를 대조적으로 비교하는 것에 초점을 두었다. 이에 부모·학교·국가가 자녀의 교육과 돌봄에 관여하는 방식에서 상대적으로 구별되는 특징을 보이는 미국, 핀란드, 중국을 선정하였다. 미국은 부모참여와 학교-가정 협력을 강조하는 맥락, 핀란드는 공공교육의 지원과 학습자의 자율성 및 미디어 시민성을 중시하는 맥락, 중국은 국가의 가정교육 정책과 부모의 교육적 책임을 강조하는 맥락을 대표하는 사례로 설정하였다. 따라서 세 국가는 어느 한 국가를 우수 사례로 선정한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부모 역할 및 교육·돌봄 지원구조 속에서 디지털 기술이 어떻게 결합되는지를 비교하기 위한 대조적 사례(contrasting cases)로 선정하였다.

미국은 학부모 참여(parent involvement)와 학교-가정-지역사회 간 협력을 중시해 왔으며(이순형, 2003), 학생의 학업성취와 전인적 성장을 위해 학교뿐 아니라 가정과 지역사회가 교육적 책임을 공유해야 한다는 관점으로 발전시켜왔다(Henderson & Mapp, 2002). 또한 커뮤니티 스쿨(community school)과 같은 학교-지역사회 협력 모델이 운영되고 있으며(정제영, 2015), 유아교육에서도 부모참여와 교사-부모 간 개방적 소통이 중요한 특징으로 제시되고 있다(김은주, 2018). 이러한 특성은 디지털 환경에서 부모가 자녀의 학습과 돌봄에 참여하는 교육적·협력적 주체로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사례로 적합하다.

다음으로 핀란드는 교육복지와 평등, 학생의 자율성과 주체성을 중시하는 교육체계를 바탕으로 학생의 성장과 디지털 역량을 지원하고 있으며(양지선, 2019), 국가 차원의 미디어·정보 리터러시(media and information literacy) 정책을 통해 디지털 및 알고리즘 환경에서 요구되는 비판적 사고와 시민성을 강조하고 있다(김여라, 2019). 따라서 핀란드는 디지털 환경에서 학교와 공공교육체계의 지원을 기반으로 디지털 환경에서 부모 역할과 부모-자녀 관계

가 어떻게 형성되고 변화하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사례로 적합하다.

마지막으로 중국은 전통적으로 가족의 교육적 역할이 강조되어 왔으며, 최근에는 부모교육에 대한 학술적·정책적 관심이 확대되고 있다(金麗蘭·이희영, 2024). 특히 「가정교육촉진법」을 통해 부모의 가정교육 책임과 자녀의 인터넷 이용에 대한 지도·관리 역할을 제도적으로 강조하고 있으며(이수진, 2024), 디지털 기반의 교육 및 돌봄 지원체계도 확대되고 있다(민철기·서동, 2025). 실제 온라인 학습 환경에서 부모가 자녀의 학습 과정에 적극적으로 관여하고 지원하는 양상이 보고되고 있으며(Tao & Xu, 2022), 자녀의 미디어 이용에 대한 부모의 중재 역시 교육적 기대와 디지털 이용 목적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나고 있다(Zhou, 2024). 따라서 중국은 국가 주도의 가정교육 정책과 가족의 높은 교육적 관여가 디지털 환경에서 어떻게 결합되는지를 분석할 수 있다는 점에서 비교사례로서 의미를 가진다.

3. 자료수집

자료수집은 2026년 3월부터 6월까지 이루어졌으며, 국내 자료는 RISS, DBpia, KISS를, 해외 자료는 Google Scholar, ERIC 및 각국 정부기관과 관련 기관의 공식 웹사이트를 활용하였다. 주요 검색어는 ‘digital care’, ‘digital parenting’, ‘parental mediation’, ‘parent-child relationship’, ‘parent involvement’, ‘digital literacy’, ‘media literacy’, ‘family education’과 이에 대응하는 국내 검색어를 사용하였다.

자료 선정은 검색자료 확인, 제목 및 초록 검토, 선정·제외 기준 적용, 최종 분석자료 선정의 순서로 진행하였다. 먼저 검색된 자료의 제목과 초록을 검토하여 연구주제와의 관련성을 확인하였으며, 필요한 경우 원문을 추가로 검토하였다. 분석자료의 선정기준은 ① 디지털 환경에서 부모 역할 또는 부모-자녀 관계를 직접 다룬 자료, ② 부모교육 또는 돌봄 지원정책을 다룬 자료, ③ 미국·핀란드·중국의 제도적·사회문화적 맥락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로 설정하였다. 반면 디지털 기술 일반에 관한 연구, 부모 및 부모-자녀 관계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낮은 자료, 동일한 정책이나 내용을 반복적으로 제시한 자료는 제외하였다. 또한 연구방법론 및 일반적인 이론적 배경을 위해 활용한 문헌은 사례분석 자료에서 제외하였다.

이와 같은 단계적 검토와 선정·제외 기준의 적용을 통해 최종적으로 미국 8건, 핀란드 5건, 중국 6건 등 총 19건의 자료를 사례분석 자료로 선정하였다. 분석자료는 학술논문, 정부·정책 문서, 연구보고서 및 관련 기관 자료로 구성하였으며, 국가별 최종 분석자료의 저자, 연도,

자료유형 및 주요 분석내용은 <표 1>과 같다.

<표 1> 국가별 분석자료의 구성

국가	저자(연도)	자료유형	주요 분석 내용
미국	이순형(2003)	학술논문	미국의 학부모 참여와 학교교육 혁신
	Henderson & Mapp(2002)	연구보고서	학교-가정-지역사회 연계와 가족 참여
	유선영·박선훈·조혜연(2017)	학술논문	NAEYC의 부모참여와 유아교육기관 평가
	김은주(2018)	학술논문	미국 유아교육의 부모참여와 부모-교사 소통
	NAEYC & Fred Rogers Center(2012)	기관자료	디지털 기술 활용과 가족·교육기관의 역할
	NAEYC(2020)	기관자료	가족참여와 학교-가정 간 협력
	Kroshus-Havril et al.(2024)	학술논문	청소년 스크린 사용 의사결정과 자녀참여
	Mashudi et al.(2025)	학술논문	디지털 환경의 학교-가정 의사소통과 부모참여
핀란드	양지선(2019)	학술논문	핀란드 교육의 역량·자율성 중심 교육체계
	Schleicher(2019)	국제기구 자료	핀란드 교육의 신뢰 중심 교육문화
	Salomaa & Palsa(2019)	국가 정책자료	국가 미디어교육 및 미디어 리터러시 정책
	National Audiovisual Institute(2016)	공공기관 자료	보호자의 아동 미디어 이용 지도 및 지원
	Sairanen et al.(2022)	연구문헌	가정 내 아동의 디지털 리터러시 실천과 가족 상호작용
중국	金麗蘭·이희영(2024)	학술논문	중국 부모교육 연구 및 부모교육의 발전
	이수진(2024)	정책자료	가정교육촉진법과 부모의 교육·인터넷 지도 책임
	민철기·서동(2025)	학술논문	디지털 기반 방과 후 돌봄 및 교육 지원
	장결(2023)	박사학위논문	중국 부모교육의 사회적 지원체계
	Tao & Xu(2022)	학술논문	온라인 학습에서 부모의 학습지원
	Zhou(2024)	학술논문	중국 부모의 디지털 미디어 중재
계	19건		미국 8건, 핀란드 5건, 중국 6건

4. 분석 틀과 분석범주

본 연구의 분석 틀은 디지털 돌봄 환경에서 부모 역할과 부모-자녀 관계가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국가 간 비교를 통해 파악하기 위해 구성하였다. 비교사례연구에서는 모든 사례에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분석 기준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며, 선행연구에서도 국가 간 정책·전략 비교 시 공통 분석 틀을 적용하는 접근이 제시된다(김민성·홍성삼, 2025). 본 연구에서는 국가별 사례를 동일한 기준에서 비교하기 위해 <표 2>와 같이 분석의 틀을 설정하였다.

<표 2> 분석의 틀

분석범주	하위범주
디지털 환경 특성	디지털 기술 활용, AI·플랫폼 활용, 디지털 교육정책
부모역할 변화	학습지원, 디지털 중재, 감독·관리, 협력·참여
부모교육 및 돌봄 지원체계	부모교육 정책, 학교-가정 협력, 공공지원 체계, 지역사회 연계
부모-자녀 관계 변화	의사소통, 상호작용, 신뢰, 자율성, 통제

첫째, 디지털 환경 특성이다. 각 국가에서 디지털 기술과 인공지능, 온라인 플랫폼이 교육 및 돌봄 영역에 어떠한 방식으로 활용되고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둘째, 부모 역할 변화이다. 디지털 환경에서 부모가 자녀의 학습과 생활을 지원하고, 디지털 기술 사용을 중재하며, 감독·관리하거나 협력·참여하는 방식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셋째, 부모교육 및 돌봄 지원체계이다. 부모가 자녀의 성장과 돌봄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국가와 학교, 지역사회가 어떠한 방식으로 부모를 지원하고 있으며, 부모교육 정책과 프로그램, 학교-가정 협력 및 공공지원체계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넷째, 부모-자녀 관계 변화이다. 디지털 기술 활용이 부모와 자녀의 의사소통, 상호작용, 신뢰, 자율성 및 통제 방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였다.

5. 자료분석 절차

자료분석은 사례 내 분석(within-case analysis)과 사례 간 비교분석(cross-case analysis)의 두 단계로 진행하였다. 먼저 미국, 핀란드, 중국 각각의 사례를 독립적으로 분석하여 국가

별 디지털 환경 특성, 부모 역할 변화, 부모교육 및 돌봄 지원체계, 부모-자녀 관계 변화의 양상을 정리하였다. 이후 네 가지 분석 범주를 기준으로 국가 간 비교를 실시하여 디지털 돌봄 환경에서 부모 역할과 부모-자녀 관계에 나타나는 공통점과 차이점을 도출하였다.

사례 내 분석 단계에서는 각 국가의 정책 문서, 학술논문 및 보고서를 중심으로 첫째, 디지털 기술과 AI 및 플랫폼이 교육과 돌봄 환경에서 어떻게 활용되는지, 둘째, 부모가 자녀의 학습과 성장을 지원하는 방식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셋째, 부모교육 및 돌봄 지원정책과 학교·지역사회의 지원체계가 어떻게 구성되는지, 넷째, 디지털 환경이 부모와 자녀의 의사소통, 상호작용, 신뢰, 자율성 및 통제 방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였다.

사례 간 비교분석에서는 네 가지 분석범주를 중심으로 국가별 공통점과 차이점을 비교하고, 분석대상 자료에서 상대적으로 두드러진 디지털 돌봄과 부모 역할의 특징을 분석적 유형으로 도출하였다. 이를 토대로 디지털 기술이 각 국가의 교육문화, 부모 역할에 대한 사회적 기대 및 정책적 지원체계가 어떻게 결합되는지를 해석하였다.

6. 연구의 타당성 확보

본 연구는 문헌분석 기반 비교사례연구로서 자료의 신뢰성과 분석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절차를 적용하였다. 첫째, 학술논문, 정부 보고서, 국제기구 자료 등 공신력 있는 자료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둘째, 국가별 사례를 분석범주와 분석 틀에 따라 비교하여 연구자의 자의적 해석을 최소화하고 분석 기준의 일관성을 유지하고자 하였다. 셋째, 특정 국가의 사례를 단편적으로 해석하지 않기 위해 교육정책, 부모교육, 돌봄 지원체계 및 부모-자녀 관계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였다. 넷째, 사례 내 분석과 사례 간 비교분석을 단계적으로 실시하여 개별 국가의 맥락을 충분히 검토한 후 국가 간 공통점과 차이점을 도출하였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본 연구는 디지털 돌봄 시대 부모 역할 변화와 부모-자녀 관계의 재구성 양상을 국가별 사회·문화적 맥락 속에서 비교·분석하고, 분석 결과의 일관성과 해석의 타당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IV. 연구결과

1. 미국: 참여와 소통을 중심으로 한 디지털 돌봄

미국 사례를 분석한 결과, 디지털 기술은 새로운 부모 역할을 형성한다기보다 기존의 부모 참여와 학교-가정 협력구조를 디지털 환경으로 확장하는 양상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특징은 디지털 환경 특성, 부모 역할 변화, 부모교육 및 돌봄 지원체계, 부모-자녀 관계 변화의 네 가지 측면에서 확인되었다.

먼저, 디지털 환경 특성의 측면에서 미국은 기존의 학교-가정 간 협력체계에 이메일, 온라인 플랫폼,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등의 디지털 기술이 결합되면서 부모와 학교 간 의사소통의 범위가 확대되는 특징을 보였다. 미국은 부모참여와 학교-가정-지역사회 협력을 교육의 핵심 가치로 인식해 왔으며(유선영 외, 2017; Henderson & Mapp, 2002; NAEYC, 2020), 이러한 참여문화는 디지털 환경에서도 이어지고 있었다. 교사와 부모는 디지털 플랫폼 등을 통해 자녀의 학습과 학교생활 정보를 공유하며 상호 소통하고 있었다(Mashudi et al., 2025).

둘째, 부모 역할의 측면에서 부모는 자녀의 교육을 외부에서 관찰하는 역할에서 학습과 디지털 경험을 지원하는 협력적 주체로 기능하고 있었다. 미국 유아교육에서는 부모 자원봉사, 학부모회(PTO), 교실 지원 등 자발적인 부모참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김은주, 2018), 디지털 환경에서도 부모는 자녀의 온라인 학습과 디지털 기술 활용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었다(NAEYC & Fred Rogers Center, 2012; Mashudi et al., 2025). 이는 기존의 부모참여가 디지털 기술을 매개로 자녀의 학습과 디지털 경험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확장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셋째, 부모교육 및 돌봄 지원체계 측면에서 학교와 교육기관이 부모를 교육공동체의 협력자로 인식하고 자녀의 교육과 디지털 경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었다. 전미유아교육협회(NAEYC)는 가족참여와 학교-가정 간 지속적인 의사소통 및 협력적 관계를 강조하며(NAEYC, 2020), 이러한 지원체계는 디지털 환경에서도 부모가 학교 및 교사와 정보를 공유하고 자녀의 학습과 발달을 공동으로 지원하는 기반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부모-자녀 관계에서는 자녀의 디지털 기기 사용을 일방적으로 제한하기보다 가족이 함께 사용 규칙을 설정하고 디지털 활동의 목적과 방법에 대해 논의하는 방식이 강조되고

있었다. 미국소아과학회는 가족 미디어 사용 계획 수립을 권고하고 있으며(American Academy of Pediatrics, 2016), 청소년 스크린 사용에 관한 의사결정에서도 자녀의 참여와 협의를 중시하는 경향이 보고되었다(Kroshus-Havril et al., 2024).

이러한 결과를 통해, 미국에서는 부모참여와 학교-가정 협력문화가 디지털 기술과 결합하면서 부모의 교육 참여와 소통이 디지털 공간으로 확장되는 양상이 나타났다. 디지털 기술은 부모참여를 대체하기보다 이를 확장하는 매개로 작용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미국 사례를 참여형 디지털 돌봄(participatory digital care)으로 유형화하였다.

2. 핀란드: 신뢰와 시민성을 중심으로 한 디지털 돌봄

핀란드 사례를 분석한 결과, 디지털 환경에서도 평등, 자율성, 신뢰 및 시민성이라는 기존 교육철학이 디지털 교육과 돌봄의 방향을 형성하는 기반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먼저, 디지털 환경 특성의 측면에서 핀란드는 디지털 기술 활용을 단순한 기기 사용 능력이 아니라 미디어 리터러시와 비판적 사고 및 시민성의 문제로 접근하고 있었다. 핀란드는 교육 기회의 평등과 학습자의 자율성, 교사에 대한 신뢰를 중시하는 교육체제를 발전시켜 왔으며(이덕난, 2017; Schleicher, 2019), 국가 차원의 미디어교육 정책에서도 미디어 리터러시를 정보를 비판적으로 이해하고 책임 있게 참여하기 위한 시민 역량으로 접근하고 있었다(Salomaa & Palsa, 2019).

둘째, 부모 역할의 측면에서는 자녀의 디지털 활동을 직접적으로 통제하기보다 디지털 환경을 이해하고 책임 있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이 강조되었다. 국가 미디어교육 정책과 보호자 대상 자료에서는 보호자가 아동의 미디어 환경을 이해하고 대화와 안내를 통해 미디어 이용을 지원할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었다(National Audiovisual Institute, 2016; Salomaa & Palsa, 2019). 이는 부모 역할이 디지털 기기의 직접적 관리보다 자녀의 미디어 리터러시와 책임 있는 디지털 참여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준다.

셋째, 부모교육 및 돌봄 지원체계에서는 국가와 공공기관이 아동과 보호자의 미디어 역량 향상을 지원하는 특징이 나타났다. 국가 미디어교육 정책과 보호자 대상 미디어 가이드는 가족과 교육공동체가 함께 디지털 환경에 대응하도록 지원하고 있으며(National Audiovisual Institute, 2016; Salomaa & Palsa, 2019), 디지털 돌봄의 책임을 부모 개인에게만 부과하기보다 공공교육 및 미디어교육체계가 함께 담당하는 구조를 보여주었다.

넷째, 부모-자녀 관계 측면에서는 대화와 상호작용, 자율성이 강조되고 있었다. 핀란드 아동의 가정 내 디지털 리터러시 실천을 다룬 연구에서는 아동이 디지털 활동을 능동적으로 시작하고 가족 구성원과 상호작용하며 디지털 실천을 구성하는 모습이 나타났다(Sairanen et al., 2022). 이는 자녀를 디지털 환경의 수동적인 보호 대상이 아니라 디지털 경험을 능동적으로 구성하는 주체로 보는 관점을 시사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핀란드에서는 디지털 기술에 대한 직접적인 통제보다 공공적 미디어 교육 지원을 기반으로 자녀의 자율성, 미디어 리터러시, 시민성을 지원하는 디지털 돌봄이 강조되는 양상이 나타났다. 이에 본 연구는 핀란드 사례를 협력형 디지털 돌봄(collaborative digital care)으로 유형화하였다.

3. 중국: 관리와 책임을 중심으로 한 디지털 돌봄

중국 사례를 분석한 결과, 디지털 기술은 국가가 강조하는 가정교육 책임과 가족의 높은 교육적 관여에 결합하면서 부모의 학습지원과 관리 역할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타났다. 먼저, 디지털 환경 특성 측면에서 중국은 국가 교육정책과 디지털 기술 기반 교육·돌봄 지원체계가 결합되는 특징을 보였다. 방과 후 돌봄 영역에서는 온라인 플랫폼과 AI, 빅데이터 등이 교육서비스와 학습관리에 활용되고 있었으며(민철기·서동, 2025), 온라인 학습 환경에서도 부모가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하여 자녀의 학습을 지원하고 있었다(Tao & Xu, 2022).

둘째, 부모 역할의 측면에서 부모는 자녀의 학습과 생활을 지원하면서 디지털 기기 이용을 지도·관리하는 교육적 책임자로서 역할을 하고 있었다. 중화인민공화국 가정교육촉진법은 부모의 가정교육 책임과 자녀의 인터넷 이용 및 생활습관에 대한 지도·관리 역할을 강조하고 있으며(이수진, 2024), 부모는 디지털 기술을 통해 자녀의 학습을 지원하는 동시에 기기 사용 내용과 시간을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다(Tao & Xu, 2022; Zhou, 2024).

셋째, 부모교육 및 돌봄 지원체계 측면에서 부모교육은 개별 가정의 문제에서 국가, 학교, 사회가 함께 지원하는 영역으로 확대되고 있었다. 중국의 부모교육은 부모에게 자녀교육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제공하는 방향으로 발전해 왔으며(金麗蘭·이희영, 2024), 정부와 학교 및 사회조직이 참여하는 지원체계도 형성되고 있었다(이수진, 2024; 장결, 2023). 이는 부모의 교육적 책임을 강조하는 동시에 그 역할을 국가와 사회가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구조를 보여주었다.

넷째, 부모-자녀 관계 측면에서 디지털 기기 사용 목적에 따라 부모의 개입 방식이 달라지는 경향이 나타났다. 부모는 디지털 기기의 학습 및 자기계발 목적 사용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반면, 게임과 오락 중심 사용에는 제한과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경향을 보였다(Zhou, 2024). 이러한 양상은 중국 부모의 자녀교육에 대한 가치와 교육적 관여를 보여준 기존의 비교문화 연구와도 연결하여 이해할 수 있다. 이기숙 외(2008)은 한국·일본·중국 부모의 자녀양육을 비교하여 자녀에 대한 인식과 양육 가치 및 실제에서 국가별 차이가 있음을 보고하였다. 이러한 기존의 양육문화가 디지털 환경과 결합하면서 중국 부모의 학습 지원과 디지털 이용 관리라는 형태로 나타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중국에서는 디지털 기술이 부모의 교육적 역할을 대체하기보다 국가가 제도적으로 강조하는 가정교육 책임과 가족의 교육적 관여와 결합하면서 학습지원과 디지털 이용 관리 기능을 강화한다는 데 있었다. 이에 본 연구는 중국 사례를 관리형 디지털 돌봄(managerial digital care)으로 유형화하였다.

결국 디지털 기술은 부모 역할을 일률적으로 변화시키기보다 각 사회의 교육문화, 부모 역할에 대한 사회적 기대 및 정책적 지원체계와 결합하면서 서로 다른 형태의 디지털 돌봄을 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디지털 돌봄이 기술 자체에 의해 결정되는 현상이 아니라 사회문화적 맥락 속에서 구성되는 현상임을 보여준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참여형·협력형·관리형 디지털 돌봄은 이러한 차이를 설명하기 위해 도출한 분석적 유형으로, 각 국가 전체의 부모 행동을 일반화한 고정적 분류가 아니라 분석대상 자료에서 나타난 상대적 특징을 개념화한 것이다(<표 3> 참고).

<표 3> 국가별 디지털 돌봄 유형과 부모 역할·부모-자녀 관계 비교

구분	미국(참여형)	핀란드(협력형)	중국(관리형)
핵심 가치	부모참여, 양방향 소통	신뢰, 자율성, 시민성	책임, 관리, 교육적 성취
디지털 환경 특성	학교-가정 디지털 소통 확대	미디어 리터러시, 디지털 시민성	디지털 기반 학습, 돌봄 및 학습 관리
부모 역할	학습과 소통을 지원하는 참여적 동반자	자율성과 비판적 사고를 지원하는 조력자	학습과 디지털 이용을 지도, 관리하는 교육적 책임자
부모교육 및 돌봄 지원체계	가족참여 및 학교-가정 협력	국가 미디어교육 정책 및 공공지원	가정교육촉진법 및 국가 주도 부모교육
부모-자녀 관계	규칙 설정과 대화를 통한 참여	자율성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협력	교육 목적의 지원과 사용 관리

V. 논의 및 결론

1. 논의

본 연구는 디지털 돌봄 환경에서 부모 역할이 어떠한 방식으로 재구성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미국·핀란드·중국의 비교사례를 통해 그 공통점과 차이를 분석함으로써 부모-자녀 관계 및 한국의 부모교육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를 세 가지 연구문제와 관련하여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디지털 돌봄 환경에서 부모 역할은 디지털 기술에 의해 축소되거나 대체되기보다 자녀의 학습과 디지털 경험을 지원하고 중재하는 방향으로 재구성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디지털 환경에서도 부모의 직접적인 상호작용과 관심 및 의사소통이 중요하며, 부모의 역할이 자녀의 디지털 경험과 발달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권혜림·이완정, 2022; 홍찬영·한성희, 2024)와 맥을 같이한다. 또한 디지털 양육이 자녀의 디지털 환경이 제공하는 기회를 활용하면서 잠재적 위험을 조정하는 부모의 실천을 포함한다는 Choy et al.(2024)의 논의와, 부모의 디지털 중재가 자녀의 초기 디지털 경험을 지원하는 구체적인 부모 실천이라는 Goodall et al.(2025)의 연구와도 연결된다.

이러한 결과는 디지털 기술의 확산에 따른 부모 역할의 변화를 단순한 ‘역할 감소’의 관점으로 해석하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준다. 부모가 자녀에게 지식이나 정보를 직접 제공하는 역할의 일부는 디지털 기술과 플랫폼을 통해 수행될 수 있지만, 정보의 적절성을 함께 판단하고 디지털 경험에 관해 대화하며 자녀의 학습과 성장을 지원하는 역할의 중요성은 오히려 커질 수 있다. 따라서 디지털 돌봄 환경에서 나타나는 부모 역할의 변화는 기존의 보호와 교육 및 중재 기능이 소멸하는 과정이라기보다 새로운 기술환경에 대응하여 그 기능과 실천 방식이 조정되는 역할 재구성의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

둘째, 부모 역할이 재구성되는 구체적인 방식은 세 국가에서 동일하게 나타나지 않았으며, 각 사회의 교육문화와 부모 역할에 대한 사회적 기대 및 제도적 지원체계와 결합되어 서로 다른 양상을 보였다. 본 연구의 분석자료에서는 미국의 경우 부모참여와 학교-가정 간 협력 및 양방향 소통이 디지털 환경으로 확장되는 특징이 상대적으로 두드러졌다. 이는 부모와 학교 및 지역사회가 교육적 책임을 공유하는 미국의 부모참여 전통(Henderson & Mapp,

2002)과 가족참여를 강조하는 교육적 접근(NAEYC, 2020)이 디지털 환경에서도 이어지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핀란드 관련 분석자료에서는 자녀의 디지털 활동을 직접적으로 통제하기보다 자율성, 신뢰, 미디어 리터러시 및 시민성을 지원하는 특징이 상대적으로 두드러졌다. 이는 미디어 리터러시를 단순한 디지털 기기 활용능력이 아니라 비판적 이해와 책임 있는 참여를 위한 시민적 역량으로 접근하는 핀란드의 미디어교육 정책(Salomaa & Palsa, 2019)과 연결된다. 또한 가정 내에서 아동이 디지털 활동을 능동적으로 시작하고 가족 구성원과 상호작용하면서 디지털 실천을 구성한다는 Sairanen et al.(2022)의 연구는 자녀를 수동적인 보호의 대상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디지털 경험의 능동적인 주체로 이해할 필요성을 보여준다.

중국 관련 분석자료에서는 부모의 교육적 책임과 학습지원 및 디지털 이용에 대한 지도·관리의 특징이 상대적으로 두드러졌다. 이는 부모의 가정교육 책임과 자녀의 인터넷 이용에 대한 지도 역할을 제도적으로 강조하는 가정교육정책(이수진, 2024), 온라인 학습에서 나타나는 부모의 적극적인 학습지원(Tao & Xu, 2022), 자녀의 디지털 미디어 이용 목적에 따라 서로 다른 중재방식이 나타난다는 Zhou(2024)의 연구와 연결하여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제시한 미국의 참여형, 핀란드의 협력형, 중국의 관리형은 각 국가 부모 전체의 행동이나 양육방식을 규정하는 고정적인 국가 유형을 의미하지 않는다. 이는 본 연구에서 선정한 문헌과 정책자료를 공통 분석범주에 따라 비교한 결과 나타난 상대적 특징을 개념화한 분석적 유형이다. 동일한 국가 안에서도 가족의 사회경제적 배경, 자녀의 연령, 부모의 디지털 역량 등에 따라 부모의 디지털 돌봄 방식은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세 유형은 국가 간 우열이나 고정된 문화적 특성을 나타내기보다 서로 다른 사회문화적·제도적 맥락에서 부모 역할 재구성의 특징을 이해하기 위한 분석적 틀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

셋째, 세 국가의 비교결과는 디지털 돌봄 환경에서 부모-자녀 관계와 부모교육을 기술의 통제나 사용관리만의 문제로 접근하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준다. 세 국가에서 구체적인 실천 방식에는 차이가 있었지만, 부모가 자녀의 디지털 경험에서 완전히 배제되기보다 학습지원, 의사소통, 안내와 중재 등의 방식으로 지속적으로 관여한다는 공통점이 나타났다. 이는 디지털 환경에서도 부모-자녀의 직접적인 상호작용을 강조하는 부모교육이 부모-자녀 상호작용을 증진할 수 있다는 권혜림·이완정(2022)의 연구와 연결된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의 부모교육에서도 자녀의 디지털 기기 사용시간을 제한하거나 위험을 예방하는 접근을 넘어 부모와 자녀가 디지털 경험에 대해 대화하고 정보를 함께 판단하며 책임 있는 이용방식을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본 연구에서 나타난 부모의 참여와 소통, 자녀의 자율성과 신뢰, 필요한 지도와 책임은 서로 배타적인 역

할이라기보다 자녀의 발달단계와 가정의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는 요소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특정 국가의 유형을 한국에 그대로 적용하기보다 각 사례에서 확인된 요소를 한국의 교육문화와 부모-자녀 관계 및 부모교육 환경에 맞게 검토하는 접근이 요구된다.

2.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디지털 돌봄 시대의 부모 역할 재구성을 미국·핀란드·중국의 비교사례를 통해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디지털 기술의 확산은 부모 역할을 일률적으로 축소하기보다 자녀의 학습과 디지털 경험을 지원하고 중재하는 방향으로 부모 역할을 재구성하고 있었다. 또한 이러한 재구성의 구체적인 방식은 기술 자체에 의해 결정되기보다 각 사회의 교육문화, 부모 역할에 대한 사회적 기대 및 정책적 지원체계가 결합되어 나타났다. 이러한 점에서 디지털 돌봄은 기술 활용의 문제를 넘어 부모-자녀 관계와 교육적·사회문화적 맥락을 함께 고려하여 이해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이론적 의의는 디지털 돌봄을 부모 개인의 디지털 기기 관리나 중재행동에 한정하지 않고, 부모의 교육적 역할, 부모-자녀 관계 및 사회적 지원체계가 디지털 환경에서 어떻게 결합되고 재구성되는지를 설명하는 관점으로 확장하였다는 데 있다. 또한 미국·핀란드·중국의 사례에서 나타난 상대적 특징을 참여형·협력형·관리형이라는 분석적 유형으로 제시함으로써 디지털 환경에서 부모 역할의 재구성을 사회문화적 맥락에서 비교할 수 있는 틀을 제시하였다.

실천적으로는 한국의 부모교육이 디지털 기기의 사용 제한이나 관리에만 초점을 두기보다 부모가 자녀의 디지털 경험을 이해하고 소통하며 적절하게 지원할 수 있는 디지털 리터러시와 중재 역량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확대될 필요가 있다. 또한 부모 개인에게 디지털 돌봄의 책임을 집중시키기보다 학교와 공공기관이 부모에게 필요한 정보와 교육적 지원을 제공하는 연계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한편, 본 연구는 문헌 및 정책자료를 기반으로 한 비교사례연구라는 한계를 가진다. 특히 본 연구에서 제시한 참여형·협력형·관리형은 각 국가의 모든 가족이나 부모를 대표하는 유형이 아니라 선정된 분석자료에서 나타난 상대적 특징을 개념화한 것이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부모와 자녀를 대상으로 한 면담이나 설문조사 등을 통해 이러한 분석적 유형의 경험적 타당성을 검토하고, 분석 국가와 문화권을 확대하여 디지털 돌봄과 부모 역할 재구성의 이론적 틀을 정교화할 필요가 있다.

참 고 문 헌

- 강동훈(2025). 노인 디지털 돌봄 관련 정부 정책 유형 탐색. **비즈니스융복합연구**, 10(1), 93-98.
- 권혜람·이완정(2022). 디지털 환경에서 영유아와의 직접적인 상호작용을 강조하는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실행과 효과. **한국보육지원학회지**, 18(1), 1-22.
- 김남숙(2025). 장애인 권리 기반 지역사회 전환을 위한 디지털 돌봄 적용 가능성의 탐색: 제주지역 사례. **디지털정책학회지**, 4(4), 181-188.
- 金麗蘭·이희영(2024). 중국 부모교육 연구동향 분석-학술지를 중심으로. **동북아문화연구**, 1(80), 333-350.
- 김미나·김성백(2026). 생성형 AI 기반 과학 수업에서 ChatGPT의 스캐폴딩 가능성 탐색: 중학생의 문제 풀이 학습을 중심으로. **컴퓨터교육학회논문지**, 29(4), 96-104.
- 김민성·홍성삼(2025). 한국·미국·영국의 사이버안보 전략 연구. **한국국가안보·국민안전학회지**, 20, 67-89.
- 김상옥·김용자(2023). 유아의 게임 이용 및 게임 리터러시에 대한 부모의 인식 연구. **부모교육연구**, 20(4), 5-24.
- 김소영·송효진·선보영·김연재·남지민·권소희(2016). **생애주기별 부모교육 활성화 방안연구**. 서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김여라(2019). 디지털 시대의 미디어 리터러시 해외사례 및 시사점. **현안분석**, 90, 서울: 국회입법조사처.
- 김은주(2018). 한국인 어머니들이 말하는 미국의 유아교육: 유아기 자녀를 미국 유아교육기관에 보낸 어머니 경험을 중심으로. **교육혁신연구**, 28(2), 115-138.
- 문무경·서문희·김문정(2011). **유아교육과 보육 정책 조정을 위한 국제비교 기초연구**. 육아정책연구소. 수탁연구보고서 2010-1.
- 민철기·서동(2025). 디지털 기반의 방과 후 돌봄서비스 유형에 따른 교육프로그램 분석: 한·중 비교. **Industry Promotion Research**, 10(2), 171-179.
- 박광옥·김용득·김상희·남세현·황인매(2022). 팬데믹 시기, 디지털 돌봄 서비스의 의미와 과제: Gilbert와 Terrell의 정책분석틀 적용. **입법과 정책**, 213-240.
- 양승완·문광태·김종배(2021). 코로나 시대의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위한 디지털 헬스케어기기 적용의 사례연구. **한국과학예술융합학회**, 39(4), 235-242.
- 양지선(2019). 핀란드 가정과 교육과정의 역량 기반 교육과정 사례 연구. **Journal of Korean Home Economics Education Association**, 31(4), 19-39.
- 유선영·박선훈·조해연(2017). 미국(NAEYC)과 한국 유아교육기관 평가의 부모참여 비교 연구. **학습자 중심교과교육연구**, 17(9), 381-402.
- 이기숙·정미라·김현경(2008). 한국, 일본, 중국 부모들의 자녀양육에 대한 비교연구. **유아교육연구**, 28(3), 151-171.

- 이덕난(2017.06.21.). 핀란드의 교육복지 입법사례 및 시사점. **교육정책포럼(월간)**, 통권 288호.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정책네트워크.
- 이상민·박민정(2024). 지방정부와 사회적경제조직의 관계 비교 사례 연구. **정부행정**, 20(2), 33-66.
- 이수진(2024). 중국 가정교육촉진법의 의의와 시사점. **세계교육정책 인포메이션 2024년 6호**, 한국교육개발원.
- 이순형(2003). 학부모 참여에 의한 학교교육의 혁신: 미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비교교육연구**, 13(2), 1-19.
- 이영·전혜정·강민주(2009). 부모-자녀 관계. **아동학회지**, 30(6), 29-41.
- 이은영(2025). 디지털 기술 돌봄 서비스에 대한 사회복지사의 경험과 인식에 관한 질적 연구. **보건사회연구**, 45(4), 443-466.
- 장결(2023). 중국 부모교육의 효과적인 사회적 지원방안에 관한 연구: A case study on the effective ways of the social support for parent education in China. 우석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장혜진·송신영(2014). **유아교육·보육 질 관리 국제비교 연구-기관 평가를 중심으로**. 육아정책연구소, 연구보고 2014-14.
- 정제영(2015). 미국의 학교와 지역사회 간 연계 사례와 시사점: ‘커뮤니티 스쿨 사례’를 중심으로. **교육정책네트워크 세계교육정책 인포메이션 제5호**. 한국교육개발원.
- 조민경(2016). 부모교육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 **육아정책포럼**, 50, 35-38.
- 현정환(2007). 한국의 부모자녀관계와 관련된 최근 연구동향과 과제. **한국보육지원학회지**, 7(1), 95-110.
- 홍찬영·한성희(2024). 부모효능감과 유아 스마트폰 과의존의 관계에서 어머니 스마트폰 과의존과 어머니-유아 놀이상호작용의 다중매개효과. **부모교육연구**, 21(4), 31-56.
- 황옥경·송미령(2026). 초등학교 자녀를 둔 부모의 양육 역할과 책임 예비척도 개발 및 내용타당도 검증에 관한 연구. **부모교육연구**, 23(2), 5-31.
- American Academy of Pediatrics. (2016). Media use in school-aged children and adolescents. *Pediatrics*, 138(5), e20162592.
- Bakker, J., & Denessen, E. (2007). The concept of parent involvement: Some theoretical and empirical considerations. *International Journal about Parents in Education*, 1(1), 188-199.
- Choy, Y. N., Lau, E. Y. H., & Wu, D. (2024). Digital parenting and its impact on early childhood development: A scoping review. *Education and Information Technologies*, 29(16), 22147-22187.
- Goodall, J., Flewitt, R., El Gemayel, S., Arnott, L., Dalziel, A., Gillen, J., Savadova, S., Timmins, S., Liu, M. C., & Winter, K. (2025). Parental mediation of very young children's early experiences with digital media at home. *Educational Review*, 1-26.
- Henderson, A. T., & Mapp, K. L. (2002). *A new wave of evidence: The impact of school, family, and community connections on student achievement* (Vol. 2). Austin, TX: Southwest Educational Development Laboratory.
- Kroshus-Havril, E., Steiner, M. K., & Christakis, D. (2024). Family and developmental correlates of adolescent involvement in decision making about screen use. *Preventive Medicine Reports*, 41, 102717.

- Mashudi, E. A., Hendriawan, D., Sundari, N., Nuroniah, P., & Arzaqi, R. N. (2025). Home-School Communication in Digital Era: A Bibliometric Analysis of Publications on Technology Supporting Parental Involvement in Early Childhood Education. *Golden Age: Jurnal Ilmiah Tumbuh Kembang Anak Usia Dini*, 10(2), 243-261.
- NAEYC. (2020). *Principles of Effective Family Engagement*.
- National Association for the Education of Young Children(NAEYC), & Fred Rogers Center for Early Learning and Children's Media at Saint Vincent College. (2012). *Technology and interactive media as tools in early childhood programs serving children from birth through age 8. Spotlight on young children and technology*, 61-70.
- National Audiovisual Institute (KAVI), Media Education and Audiovisual Programmes Unit. (2024). *Children & Media: A Guide for Guardians*. Publications of the National Audiovisual Institute 3/2016.
- Sahlberg, P. (2021). *Finnish lessons 3.0: What can the world learn from educational change in Finland?*. Teachers College Press.
- Sairanen, H., Kumpulainen, K., Nordström, A., & Kajamaa, A. (2022). Young children initiating and negotiating their digital literacy practices in their homes. In *Nordic Childhoods in the Digital Age*, 53-65. Routledge.
- Salomaa, S., & Palsa, L. (2019). *Media Literacy in Finland: National Media Education Policy*. Helsinki: Ministry of Education and Culture.
- Schleicher, A. (2019). The secret to Finnish education: Trust. 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The OECD Observer*, 1-3.
- Tao, J., & Xu, Y. (2022). Parental support for young learners' online learning of English in a Chinese primary school. *System*, 105, 102718.
- Yin, R. K. (2014). *Case Study Research: Design and Methods* (5th ed.). Thousand Oaks, CA: Sage.
- Zhou, C. Y. (2024). Parenting With Chinese Characteristics in the Digital Age: Chinese Parents' Perspectives and Parental Mediation of Children's Media Use. *International Journal of Communication*, 18, 1-19.

Abstract

Reconstructing Parental Roles in the Era of Digital Care: A Comparative Case Study of the United States, Finland, and China

Kim, Byung Sun* · Jun, Eun Ock**

This study conducts a comparative case study of the United States, Finland, and China to examine how parental roles are being reconstructed in digital environments and how this reconstruction relates to parent - child relationships. The data consisted of academic articles, government and policy documents, research reports, and materials from relevant organizations and were collected and analyzed through document analysis. The analytical framework comprised four categories: characteristics of the digital environment, changes in parental roles, parent education and care support systems, and changes in parent - child relationships. Both within-case and cross-case analyses were conducted. The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the expansion of digital technology did not weaken parental roles but rather reconstructed them as educational partners supporting children's learning and digital experiences. Second, patterns of digital care differed according to cultural values, educational philosophies, and parent education policies. Based on the relative characteristics identified in the analyzed materials, the United States, Finland, and China were conceptualized as participatory, collaborative, and managerial types of digital care, respectively. Third, these patterns represent analytical types grounded in sociocultural contexts, suggesting that digital care is shaped by sociocultural and institutional contexts rather than determined solely by technology. This study provides an analytical framework for understanding the reconstruction of parental roles from the perspective of digital care and offers a basis for enhancing parental digital literacy and developing parent education programs and related policies

Keywords: digital care, parent - child relationship, parental role, parent education, comparative case study

* Professor, VERUM Liberal Arts College, Catholic Kwandong University

** Senior Researcher, Policy Alternative Research Institute, Noworry